

작은 항만사업장까지 꼼꼼하게... 안전시설 지원 강화

- 해수부, 올해 항만사업장 71개소에 안전장비 및 시설 설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항만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대상지로 71개 항만사업장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항만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락사고 방지 장치, 인공지능(AI) 기반 사고 방지 장치, 응급구조설비 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지난 4년간 총 146억 원(국비 및 항만공사 보조)을 지원하여 244개 사업장에 안전시설 및 장비 보급을 지원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국비 지원을 50%를 일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50%, 그 외 사업장에는 30%를 적용하여 차등 지원한다.

* 이번에 선정된 71개 사업장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0개소가 지원대상에 포함

이번에 지원하는 대표적인 안전장비 및 시설로는 스마트 에어백, 응급구조함,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장비(CCTV) 등이 있다. ▲스마트 에어백은 높은 곳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할 경우 빠르게 팽창하여 인체 주요 부위를 보호하고 전화나 문자를 통해 자동으로 사고를 알리는 장비이다. ▲응급구조함은 크레인에 장착하여 구조인력을 선박에 빠르게 진입시킬 수 있어,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장비(CCTV)는 항만하역장 육상구역 내 중장비 주변의 사람을 인식하여 운전자에게 주의를 줌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항만사업장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오는 7월에도 추가 공모가 예정된 만큼, 보다 많은 항만사업장에 안전장비 및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한 항만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노동강도가 높은 작업공간으로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놓여있다.”라며,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항만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책임자	과 장	한지웅 (051-773-5790)
		담당자	사무관	박명래 (051-773-5791)



참고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예시



추락보호 에어백 착용(신호 및 고소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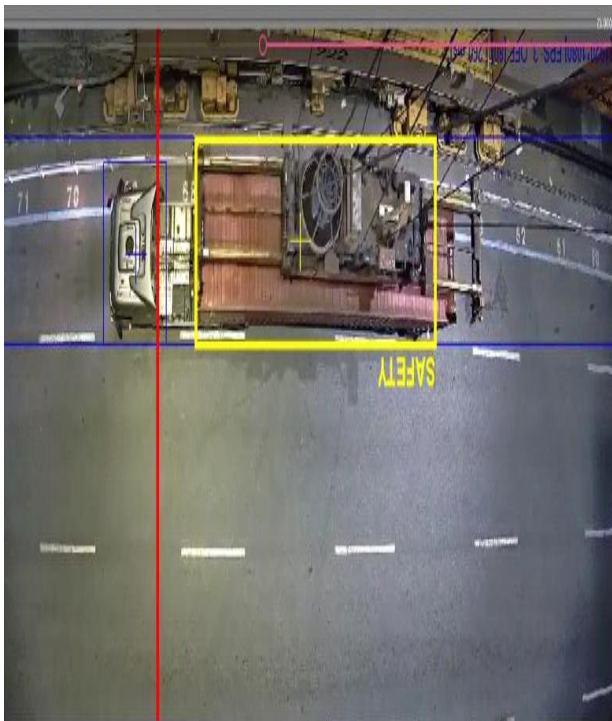
추락센서 감지시 에어백 기능

추락센서 감지시 구명조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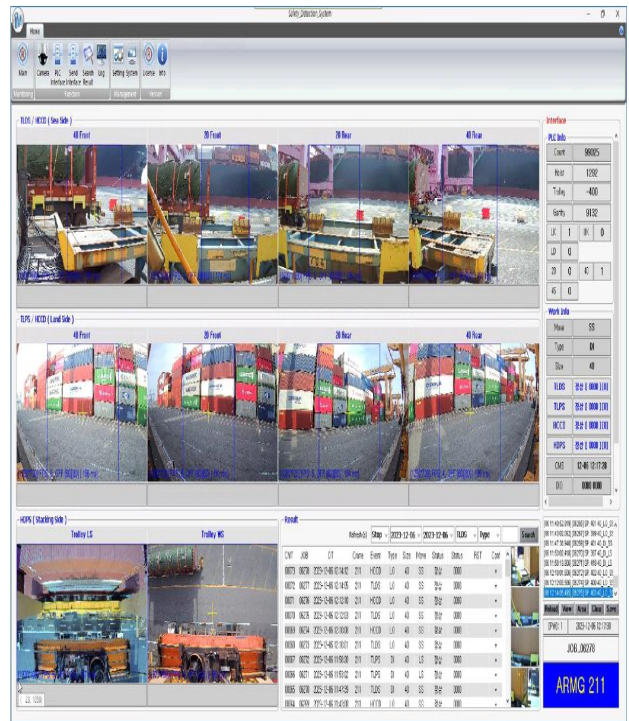
스마트 에어백



응급구조함



AI 기반 사고방지 장치



AI 기반 사고방지 장치